

# 간병비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연령 하향 등 입법 관심

‘총선압승’ 野, 보험 관련공약 주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늘리고  
특정질환 로봇수술 보험적용 확대  
보험업계 “관련영향 시일 걸릴 듯”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연합 공동대표 등이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충북 현직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및 22대 총선 비전 공동선언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스1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

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KB국민카드 전통시장 매출액 5년새 34% 증가

지난해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 가맹점 데이터 5700만건 활용

KB국민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새 전통시장 매출액이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용 회원수는 2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장을 방문한 회원의 18%는 신규 방문객이다. 신규 방문객 중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로 음식점을 방문했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26%) ▲60대 이상(21%) ▲50대(20%) 순이다.

### 신한카드 전통시장 가맹점 무이자할부·캐시백

신한카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혜택을 강화했다.

◆ 추첨 통해 최대 100만 포인트

신한카드는 전국 27개 전통시장과 제휴를 통해 가맹점 4000여곳에서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어 5월말까지 1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신한결제이 ‘내 타임라인’에서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총 301명을 추첨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100만포인트(1명) ▲3만포인트(100명) ▲3000포인트(200명) 등으로 구성했다.

### NH농협카드 ‘지금.휴가중’ 카드 디자인 대회 5관왕

NH농협카드가 국내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 배우 고윤정 광고모델

NH농협카드는 홍콩 HKDA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런던, 한국 등에서 개최된 다수의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지금.휴가중’ 카드로 참가했다.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켈린더, 카테일, 해외 풍경 등을 담았다.

‘지금’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고윤정을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지금 시리즈와 상호작용을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DGB대구은행, PRM 통한 기업대출 규모 10% 육박

기업금융전문가 中企 공략 성과  
1인당 취급규모 일반 임직원 5배

DGB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기업금융전문가(PRM) 제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은행 전체 기업대출의 약 10%를 PRM이 취급했다. 대구은행은 퇴직금융인 채용을 통해 PRM 인원을 2배로 늘려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2월 말 시중은행·금융 공기업 지점장·부장급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금융전문가(PRM)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 분야는 기업금융·영업, 기업 여신 심사 부문이다.

이번 채용에서 대구은행은 50여 명의 PRM을 새로 임명했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는 충청도 지역에도 PRM을 총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영업망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PRM 제도는 금융권 퇴직자를 단독 영입이 가능한 ‘1인 지점장’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각 PRM은 소속 영업점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 기업을 방문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대구은행 소속 PRM 총원은 66명이다. 같은 기간 PRM이 판매한 대출액 규모는 3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기업대출액인 33조3150억원의 9.4%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의 전체 임직원은 약 3100명으로, PRM 1인당 기업 대출 취급 규모는 일반 임직원의 5배 수준에 달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은 타 직종보다 퇴직 시기가 이른 편으로, 근무 여력이 남은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의지가 크다”며 “퇴직자들은 PRM제도를 통해 기존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어 업무에도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앞서 전년대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고, 강원도 등 채용에서 제외된 지역도 시중은행 전환 이후 PRM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전환 이후 시·도 단위로 거점 영업점을 설치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영업망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이후 기업대출 전략으로 ‘맞춤형·관계형 기업금융’을 추진하는 만큼 PRM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모델로 ‘뉴 하이브리드뱅크’를 제시했다. 영업점 설치를 최소화해 금리 경

쟁력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에 중점을 둔 개인 금융과 방문형·맞춤형 금융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 금융을 병행해 성장시키겠다는 것.

또한 대구은행은 PRM 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대출 건전성 평가에 매출·신용·자산 규모 등 재무적 정보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대안 정보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기존 평가 모델에 기존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등비 재무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라며 “지역별에도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심사 과정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 15대 1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대 1,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9가구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25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3.23대 1이며, 최고 청

약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 A 주택형에서 나왔다. 2가구 모집에 총 30명이 청약해 15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안상미 기자

## 현대캐피탈, 호주·인도네시아 사업 가속화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 인수  
호주 법인 설립 작업도 착수

현대캐피탈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금융사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은 인도네시아 여신전문 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Paramitra Multifinance)’를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후속 작업을 통

해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로 탈바꿈한다. 다음해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강화에 집중했다. 차량 견적 산출과 대출 심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용 앱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어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캐피탈 호주’ 설립 작업에도 착수했다. 오는 11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영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